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매 순간 애쓰고 계신,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 창설 이래 국가의 지위가 변경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참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성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과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국민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많은 선배 공직자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라면, 코로나 19도 반드시 이겨내고 일상으로의 회복도 하루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최근 들어, 이러한 성과를 무색케하는, 일부 공직자의 그릇된 행동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례들이 국민들께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렸고, 나아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흔들리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절대 다수 공직자 동료들의 노고를 훼손하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부터 공직 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자의 기본을 저버리는 일이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을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러분을 믿지 못해서 시행한 조치가 아닙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 복무규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성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국민이 허락해주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결코 짧지않은 시간입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고, 백신 접종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포용적 경제 회복이라는 또 다른 숙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온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의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임해주십시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발언과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공무원이 5년마다 줄서기를 하고 복지부동한 집단이라는 오해와 불명예를 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직자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우리가 짓밟아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공직자들은 정부의 임기나 정치 일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과 행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한민족의 역사는 국난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공직자로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국민들께 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일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법무부장관 박범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인사혁신처장 김우호	경찰청장 김창룡	